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6.(목)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6일(목)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노종용**	☎ 044-300-7177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글로벌진로탐험대 시범사업, 기획부터 제대로 해야…”

–25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기획비·운영비 동시 편성 지적…현지답사와 수요 확인 뒤 운영비 편성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연기면·연동면·해밀동,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첫날인 25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글로벌진로탐험대 시범사업의 기획을 마치기도 전에 운영비까지 본예산에 올린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약 25억 4천만원이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청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학생 수요와 현지 프로그램,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교원 의견을 듣기로 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기획비로 무엇을 준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명숙 교육국장이 현지 사전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탐험지를 정하겠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기획비에 홍보영상 제작비와 인쇄비까지 잡혀 있지만 정작 사전답사 경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

육청이 직접 현지에서 학생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관별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기획 예산과 운영 예산을 같이 올릴 일이냐”고 반문했다.

학교 참여 규모도 살폈다.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학교는 7개교였고, 학교 지원비는 조사 전에 추산한 4개교를 기준으로 편성됐다. 김 국장이 예산 확정 뒤 정식 신청을 받겠다고 설명하자, 노 의원은 학교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와 인솔 교원의 부담을 살피고 실제 참여 수요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6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위탁비 23억 4천만원의 산정 근거도 따졌다. 김 국장은 기존 원가계산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참여 학교와 방문 코스가 정해지면 원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어디로 몇 명이 갈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면, 지금 제출된 위탁비가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노종용 의원은 현지답사와 학생 수요조사, 인솔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대책과 운영계획을 먼저 구체화한 다음 필요한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사업인 만큼, 그에 걸맞은 준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